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
모
팀

뉴스초점

종계, 육계 자조금사업 착수

병아리 수당 10원씩 징수키로

종계업계와 육계업계가 공동으로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생산기반 안정과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육용 실용계 병아리 판매시 수당 10원을 징수하여 본회 자조금사업에 기금을 적립키로 합의를 하였다.

수당 10원 중 종계와 육계업자가 각각 5원씩 부담하게 되는데 6월은 복병아리 입식기여서 병아리 생산이 최대치를 유지하게 되는데 예년의 생산량 추이를 감안한다면 약 3억원 정도가 모금이 될 수 있어 침체되어 가는 육계업계의 활로 모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간 양계 자조금사업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어 큰 효과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좀더 성숙된 참여의식의 발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자진 참여 효과가 어떤 힘을 발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백세미 추백리 검사대상 제외

법적근거 없어 규제에 어려움

종계·부화업계의 최대 현안 문제인 백세미 불법 생산 근절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하자 농림부는 생산규제보다는 질병 차원으로 접근하여 백세미가 닭 질병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백세미에 대한 추백리 검사 규정을 마련코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산법 등 관계규정에 백세미에 대한 종계관련 정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기관의 규제검사 실시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

어 추백리 검사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정부 제2차 구조조정 확정발표

양계관련 조직 큰 변동 없어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제2차로 단행된 구조조정에서 당초에는 양계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통폐합이 거론되어 양계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본회도 닭의 특수한 사양관리와 방역위생의 중요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양계관련 업무 수행 기관의 존속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축산국도 과별 또는 계별 업무조정 수준에서 구조 조정작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축산위생과는 가축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년 초여름 기온 급상승

각종 닭 질병 만연우려

금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급상승하여 봄부터 초여름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 결과 가금티푸스 발병율이 급증하면서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정부에 가금티푸스 근절대책 수립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다. 가금티푸스 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을 백색 산란계로의 전환, 백신접종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백색란 유통의 한계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커서 종합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생균백신 도입을 위한 야외시험을 공식 의뢰하였지만 검토단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국산 가금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

육계 성수기와 맞물려 큰 우려

정부는 지난 1998년 1월 1일을 기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중국산 가금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현재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해제 요구를 강력히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정부 실무자들이 현지 방문 조사를 마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위해 행정 차원에서 검토를 마친 후 최종 마무리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닭고기와 계란의 광잉생산으로 국내 거래가격이 대폭락을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는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7, 8월의 삼복을 앞두고 있어 육계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육계 초복입추전 가격 급락

질병감소와 수입육 증가 원인

본격적인 복병아리 입추를 앞두고 육계와 병아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또 다시 육계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하여 걱정이 앞서고 있다. 육계의 경우에는 질병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양호해진 데다가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일시적인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반입된 수입 닭고기가 저가에 유통이 되는 바람에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낮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계입추를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강세로 유지되어 오던 병아리 가격도 동반하락하여 일시적으로 400원대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복입추가 시작되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